

“확실히 몰라야 크게 깨닫게 돼”

니겠어.”

1975년, 부처님오신날의 공휴일 지정에도 성수 스님은 큰 역할을 했다. 김현욱씨와 불자국회의원 등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을 박 대통령에 수차례 건의했으며, 학자 10명과 스님 10명이 참석한 세미나도 열고, 시민들의 도장을 받은 서명 용지를 트럭 세 대 분이나 청와대에 싣고 가기도 했다. 결국 국민들의 5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이 성취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스님의 법력은 두툼한 배경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님 표현으로는 “6개 본사급 주지소임을 볼 때마다 지역 어른들을 부러먹는(?) 재주가 비상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범어사 주지소임을 맡았을 때의 일화다. 스님은 처음 부산시장을 두 번이나 찾아가도 만나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스님을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초도순시 차 부산에 들렀을 때였다. 부산시장과 지역 유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수 스님은 유일하게 스님으로서 현장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바쁜 일정상 다른 사람들과는 약속만 했는데, 스님과는 약속을 한 후 대화가 이어졌다.

“범어사 주지입니다.”

“범어사가 전쟁 통에 많이 황폐화되었는데, 복원은 좀 하오?” “부산시장이 음으로 양으로 거들어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부산시장의 등을 툭툭 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때라, 그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출세 길이 보장되던 시절이었다.

그 다음 날, 새벽에 부산시장이 부러부러 범어사를 찾아와서 주지실 앞마당에서 절을 했다. 절에 1원도 시주하지 않고서 대통령에게 칭찬을 들었으니, 스님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황송해 했다.

스님이 차 한 잔을 건네자, 부산시장이 말했다.

“뭘 도와드릴까요? 스님.”

“물질 말고 행정적, 사무적으로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뭐 좀 화주(主)를 하고 싶으니 화주 책을 주십시오.”

“화주 책은 따로 없습니다.”

그 후 시장이 중무소에서 화주 책을 만들어 가서 시장실에서 시주를 받아 왔다. 시장실에 드나들던 지역 유지들이 적지 않은 돈을 시주해서 그것을 모아 절에 보시한 것이다. 이때부터 범어사에는 하루에 고급 승용차 50대씩이 드나들 정도로 사격(寺格)이 높아졌다. 덕분에 범어사는 30동의 건물을 새로 짓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불사금이 풍부해졌다. 비구 스님 100명이 어렵게 공부하던 범어사가 재정이 넉넉해져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그야말로 대통령 앞에서 말 한 마디 잘 한 공덕으로 ‘범어사의 중장주’라고 불릴 정도로 성수 스님이 큰 불사를 한 것이다.

“돈은 잘 지키고, 잘 써야 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중생제도를 위해 알뜰하게 모으고 좋은 곳에 써야 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삼성그룹 창립자인 고(故) 이병철씨와 대한불교진흥회 설립자인 고(故) 장경호 거사 등 큰 부자들, 그리고 거물급 정치인들과의 인연담을 듣다 보면 스님의 법력과 불교의 보이지 않는 힘을 실감하곤 한다. 그러나 요즘은 불교세가 약해져서인지, 천주교 신부님들이 정치인, 경제인들과 유대관계도 깊고 영향력도 큰 세상이 되었다. 권력과 돈에 비굴하게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해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부처님 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세간과 출세간이 들어 아닌 불이법(不二法)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연장선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정치인들이 무릎 꿇고 들을

때, 한 마디 청하는 거야.”라며, 들을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하신다.

그대신 스님은 해방 후 범어사 위령재에 이기봉씨가 참석했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신다.

당시 스님은 약관 27세에 불과했는데, 어느 큰 행사에서 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권력자인 이기봉씨에게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당당히 말했다.

“불교 재산을 빼앗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국보 등의 문화재를 관리할 예산은 세워놓았습니까?”

이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이기봉씨는 “10리 안에 있는 사찰 재산의 절반은 돌려주라”는 행정지시를 내려서 통도사는 150마지기의 땅을, 해인사는 300마지기의 땅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특히

진정한 봉축은 나눔의 실천
도 닦는 것도 나눠줄 줄 알아야
정신 1초만 나가도 송장 돼
삶 소중한 줄 알고 사세요

해인사는 10리 안에 눈이 거의 없어서, 100리 안까지 짙 땅을 돌려주도록 예의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한다.

2시간여의 즉석 법문에 피곤하신지,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으로 특집 인터뷰를 정리하신다.

“정신이 1초만 나가도 송장이 되는 것이니, 삶이 소중한 줄 알고 살아야 해. 지구가 돌고 돌지만 태양은 움직이지 않잖아. 밝은 정신은 가만히 있는데, 물질은 빙빙 도는 것과 같아. 숨 들이 쉬고 내쉬지 못하면 죽잖아. 자기한테 속고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꿈속에 살면서 남의 다리 굽지 말고 불알 값 하는 사내가 되어 해. 나는 사내 같은 사내냐? 뭐하고 사느냐? 하고 따져 보고 꿈을 깨어야 해. 나이 80이 돼도 배울 건 배워야 해.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고 확실히, 분명히 몰라야만 크게 깨닫게 돼.”

조실재 바깥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시는 스님께 인사를 올리고 돌다리를 건너면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 ‘올 부처님오신날은 애독자들의 기쁨에 어느 해보다 밝은 등이 켜지지 않을까?’ 라고.

글·사진=김성우 객원기자



성수 스님

192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성수 스님은 44년 양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7년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주지, 78년 세계불교지도자 대회(일본 주최) 한국 대표, 81년 조계종 총무원장, 94년 조계종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尚) 승려에게 계를 내리는 최고 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전계대화상 겸 명예원로의원이며, 경남 함양 횡대선원, 산청 해동선원, 서울 법수선원의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저서에 <선문참요> <불문보감> <열반제> <선행문> 등 10여권이 있다.

성수

세상 모든 일은 행복을 위한 공부거리입니다

밝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마음공부의 핵심

행복한 공부



김정섭 지음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스테디셀러 《행복한 마음》 저자의 두번째 이야기!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마음공부법을 알려주는 수행일문서! 마음공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면적으로 해결하는 공식이 바로 공부이고 수행이다. 수행의 궁극점에서 만나는 24가지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려준다. 마음공부의 초심자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실천 가능한 공부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책.



180쪽 | 값 8,000원 | 978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
중앙독서대상
추천도서

세월이 흐를수록 감동의 깊이가 큰 울림으로 되살아납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는 172가지 뜻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삶의 여정에 막히고 막혔던 갖가지 문제들의 해답을 스스로 열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인의 고단한 영혼 위에 드리운 커다란 나무 그늘 같은 책

행복한 마음



김정섭 지음
532쪽 | 값 8,900원 | 978

대한출판문화협회 Tel 031-965-3104
www.gmmyoung.com